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 인류행복의 救國救世 佛事

대한민국에 ‘불교천문대’ 를 세웁시다

『도솔산천문대』 건립발원 모연문

『도솔산천문대』 건립계획(안)

- 이 말이 21세기 우리인류에게 공존공영의 원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우주를 보면 불교가 더 잘 보이고, 불교를 보면 지구촌이 산다.”

1. 우주의 법칙은 연기(緣起)

저 광대무변한 우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에너지 창고입니다. 이 에너지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며, 뭐라고 따로 이름 부칠 수는 없지만 불성(佛性)이나 법성(法性)을 근본으로 하는 이 에너지는 연기(緣起)의 법칙을 따라 생성소멸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에너지 창고인 우주에서 생겨난 만물들은 크거나 모양, 시간이나 공간을 떠나 모두가 제각기 하나의 소우주입니다. 다만 인연 따라 태어나나 지구 등 천체가 생겼고, 내지 사람이나 초목 군생(群生)까지도 생겨났으며, 또 마침내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서져 가루가 되고 가스가 된 이들을 토대로 새로운 생명의 씨가 돌아나 성주괴공(成住壞空)과 생주멸(生住異滅)의 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2. 만유(萬有)의 근본은 법성(法性)

말하자면 근원에 의지해서 모든 생성소멸이 연기의 법칙에 따라 반복될 뿐이지, 그것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상의 모양과 이름, 시간과 공간은 달라도 근본의 법성은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철저히 아는 것을 불교에서는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천문대건립 과업의 당위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이 같은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천문대를 세워서 천체를 관측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양보다 우주법계를 더 깊이 다루는 불교에서는 하늘에 대한 구체적인 전체관측을 하면서 연구한 바가 역사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정량적(定量的)인 시구의 합리적 사상보다 정성적(定性的)인 동양 고유의 전일적(全一的) 사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부분보다 전체를 관조하고자 하는 동양의 전통적 사유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불법(佛法)은 우주만상의 원리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주를 탐구하는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자들도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인류 공동의 평화번영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불교 경전에만 의존해온 추상적인 사유의 우주관을 벗어나, 이제부터는 전체관측의 구체적인 체험과 이해를 통해, 우주 구성체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져서 실질적인 사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주법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전일적(全一的)인 사상을 인식함과 동시에, 심오한 불법의 세계를 전 우주적으로 확장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만이 오늘날 물질문명에 짓눌려 있는 우리들 정신세계를 회복하는 최우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찍이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상주법계(常住法界)나十方三世(十方三世),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와 수미산(須彌山)의 존재,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고 표현했던 허공의 크기 등, 실로 광대무변한 불교 우주관을 21세기 첨단 과학인 천문학을 통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불교천문대’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 하여 뜻을 모았습니다.

4.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의 길

현대인의 과학적인 상식으로 천문학을 ‘우주만유의 생성소멸과 변천과정을 밝히는 학문’이라고 단순하게 말합니다만,

우리 불자들에게는 천문학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주천체계가 곧 불교의 연기적 법계이며, 깨달음의 세계로 깊이 인식됩니다. 왜냐하면 집착심을 떠나면, 우주 그 자체가 바로 불법의 세계이며, 또한 불법의 진리로 이루어진 진정한 삶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새벽하늘 밝은 별을 보고 깨쳤고, 철학자 칸트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에서 인간도덕률의 근본을 찾아야 한다고 ‘실천이성 비판’에서 역설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천문학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나 관측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불교의 우주적인 원용무애한 사고는 세계평화의 원리로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닫혀 있게 되었고, 우리 인류가 진리동일생명으로서 한 몸, 같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천갈래 만 갈래로 쪼개져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대립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애석하고 통탄할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불교천문대 건립은 구국구세(救國救世)

이에 저희들은 우리불교의 위상에 따르는 시대적 요청과 그 사명을 자각하고, 인류가 이룩한 과학발전능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불교의 평화원리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전파하기 위해 안성 도피안사에 <도솔산천문대>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하여 전 불자, 전 국민과 인류를 대상으로 불교의 우주관을 바르게 알리고, 나아가서 거기에 맞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하여 인류 공동체의 터전인 지구생태계 사랑에 앞장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말까지 증상을 드러내고 있는 현대의 물질문명에도 분명 새로운 활로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도피안사의 <도솔산천문대> 건립은 개산조(開山祖), 금하당 광덕대선사(金河堂光德大禪師)께서 주창한 전법지상(傳法至上)의 숭고한 뜻을 실천하는 구국구세(救國救世)의 구체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6. 세계적인 대작불사(大作佛事)

오직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키우지 않으면 인류평화와 지구생태계의 보존 등,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불자형제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한국에 불교가 전해진 이래, 처음 이루어지는 이 세계적인 대작불사(大作佛事)에, 전 불자들과 국민 모두가 뜨거운 신심과 장한 원력으로 흔쾌히 동참하여 <도솔산천문대>를 건립하는 대역사를 성취합시다.

그러하여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계승하는 대가 구국구세(大覺 救國救世)를 이루는 불법의 상속자가 됩시다. 또한 조상님의 지혜를 계승하는 거례의 자랑스러운 후예가 됩시다. 각행원만(覺行圓滿)한 한국불자들의 참 면모를 드러내는 진실불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다 나무석가모니불

불기 2549(2005)년 1월 11일 <도솔산천문대>건립위원회 일동

1) 주요사업

- 가. 어린이, 청소년 천문학교실
- 나. 종교인 천문학교실
- 다. 일반인들의 천문학교실(우주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범국민천문교양교육 실시)
- 라. 불교도와 과학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불교과학 포럼’ 운영 및 자료집 발간
- 마. 지역 주민과 과학도, 불교도를 위한 자료실 및 도서관 운영
- 바. 불교단체, 과학자단체, 기업체의 인직원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실행
- 사. 불교와 과학에 대한 자료집 등 출판비급
- 아. 기타

2) 건립계획

- 가. 건립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도솔산(도피안사 경내)
- 나. 건축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최상층(관측천체망원경 설치) 바닥면적 100평 · 연면적 700평
- 다. 건축용도
 - 최상층 - 관측 주(보조)망원경 설치
 - 5층 - 강의장, 대기실, 숙소, 대강실, 집결실, 관측실, 조정실
 - 4층 - 자료보관실, 사무실, 연구실, 기기보관실.
 - 3층 - 천문학에 관계된 사진 및 관측자료 전시관
 - 2층 - 일반도서관(2)
 - 1층 - 일반도서관(1)
 - 지하1층 - 영상관(천문학 영상관)
- 라. 건축구조 : 철근콘크리트 및 일부철골구조(최상층)

- 마. 망원경 및 측기
 - ㉠ 대형(주)망원경 - 1대(구경 100cm)
 - ㉡ 소형(보조)망원경 - 굴절망원경 6대(구경 15cm) 반사망원경 6대(구경 30cm)
- 바. 천문대의 부대시설
 - 돔, 플래나타리를 설치 : 별자리관측, 80인용, 슬라이딩 돔(천문학과 일반 과학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포함한 첨단시설 도입)

『도솔산천문대』 건립 시주동참금 입금구좌 안내

농협 237086 - 51 - 066783 (예금주 도피안사 김인현)
우체국 100339 - 01 - 001332 (예금주 도피안사 김인현)
국민은행 245301 - 04 - 063971 (예금주 도피안사 김인현)

동참동행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국불교 초유의 이 대작불사에 뜻을 함께 한다는 보살심의 발로이고 광덕스님의 구국구세 행원에 동참하는 뜻 깊은 일이 됩니다. 송금하신 분께서는 아래 건립위원회 사무실로 전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연락처 (건립위원회 사무실)

전화 : 031-676-8700 / 전송 : 031-676-8704
E-mail : dopiansa@komet.net
홈페이지 : http://www.dopiansa.or.kr
(주소)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우, 456-893)

보현도량 도솔산 도피안사

제2회 불교어린이 천문학교실 안내

- 마음(상상력)이 큰 어린이들이 천재다 -

부모님들께
우리 어린이들은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순수하기 때문에 나오는 힘입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첨단과학인 천문학을 통해 저 광대무변한 우주를 바라보게 하여 도솔천?도리천?사왕천 등 불교경전에 나오는 여러 하늘나라를 우주 속에서 찾게 해줍니다.
또 이 별 저 별을 마음껏 쏘다니게 하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길러주며, 수십 년 수행하여 얻은 것보다 더 큰 '열린 마음'을 우주의 별을 보며 깨닫게 합니다. 나라의 앞날과 인류의 밝은 미래는 오직 마음이 큰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번 제2회 <불교어린이 천문학교실>을 놓치지 마세요. 천문학은 인간교육의 근본인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천문학교실은 엄마와 함께 해요.

- 기 간 : 2005년 1월 19일(수)~1월 21일(금) - 2박3일 (1월 19일 11:00까지 도착, 점심공양은 수행원에서)
- 장 소 : 도피안사 내 「파라미타수행원」
- 교육비 : 100,000원(1인당, 교재비 포함)
- 인 원 : 약50명 (접수 순에 의한, 단 보호자와 함께 하는 경우 우선)
- 대 상 : 초등학교(4, 5, 6학년)과 그 어머니 (중 · 고생 및 일반도 가능)

- 천체관측 : 별, 달, 행성
 - ① 밤 별 보기 - 19:00 ~ 23:00
 - ② 새벽 별 보기 - 04:00 ~ 06:00
- 강 의 : '별의 세계와 불교의 우주관'
- 비디오 감상 : '우주의 신비'
- 지 도 : 이시우 박사(관측천문학, 前 서울대 교수)
- 교통편 : 어머니(보호자)와 함께 개별도착 (당일 오전 11시까지)
- 담 당 : 해관거사 박성근(도피안사 사무장)
- 준비물 : 방한도, 장갑, 양말, 방한화 (천체관측 때 착용)

※ 날씨에 따라 교육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피안사의 관측기기 및 시청각교육 기자재 구비사항
망원경 구경 220mm, 상안경 배율 15 · 구경 80mm
환등기, 스크린, O.H.P, DVD 플레이어, LCD 프로젝터
전자지시봉 등 시청각기자재 완비

- 연락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
전화 : 031-676-8700 / 전송 : 031-676-8704
홈페이지 : http://www.dopiansa.or.kr
E-mail : dopiansa@komet.net

※ 교육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마감은 2005년 1월 15일까지입니다.

『도솔산천문대』 건립위원회 명단

고문 : 太空玉珠 (前 조계종 총무원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顯庵印幻 (前 동국대 교수, 경국사 회장)

총재 : 瑞海興教 (범어사 금강계단 전계사,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상무이사)
부총재 : 法界明星 (전국비구회회장, 운문승가대 학장) 趙洪植 (성균관대 명예교수, 조계종중앙신도회 고문) 金煥泰 (불교사, 동국대 명예교수)

추진위원장 : 修佛法畫 (안국선원장) 李時雨 (전문학박사, 前 서울대교수)
위원 : 淨岩慧檀 (佛光門人) 松龍玄實 (운양보문사주지) 김선미(국회의원, 안성) 김영진(번호사) 김태원(안성문화원장) 이각범(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이동희(안성시장) 이상원(실크로드여행사대표) 이정희(웨딩프러자나대표) 이재운(소설가) 이윤호(경기대학교) 이한성(안성장학새마을금고이사장) 장현수(전경기도의원) 조문래(부다의사람들대표) 송영식(번호사) 허영욱(죽산농협조합장) 황보상 (의사)

-가나다순-

자문위원장 : 彌山賢光(스님, 중앙승가대학교수, 前 조계종총무원사회부장)
부위원장 : 『불교』 - 김재영(동방대학교수) 『과학』 - 박영재(서강대학교수)
위원 : 『불교』 覺默(초기불전연구원지도법사) 普光本覺(중앙승가대학교수) 須彌海(동국대학교수) 김광식(부천대학교수) 김호성(동국대학교수) 박성배(미, 뉴욕주립대학교수) 신규탁(연세대학교수) 이종표(전남대학교수) - 가나다순 -

『과학』 박광서(서강대학교수) 정재모(강원대학교수) 소광섭(서울대학교수) 신희성(KIST학습기억현상연구단장) 우희중(서울대학교수) 이일훈(건축가) 이택주(한택식물원장) 전재근(서울대학교수) 정계섭(덕성여대학교수) 황우석(서울대학교수) - 가나다순 -

지도위원장 : 那伽性陀(불국사 회장)
부위원장 : 羣山道法(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朴世逸(국회의원)
위원 : 觀照性國(범어사스님) 正峰至歡(조계종기본선원장) 圓澤(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益山度庵(불교방송이사장) 京庵志源(조계종사회부장) 宗薰(조계종종회의원)

智光法輪(정보회지도법사) 意淨志炯(범어사승가대학장) 圓云-眞(문운사 승가대학장) 방상복(神父) 양운기(神父) 서명원(프랑스神父) 강대철(조각가) 김광삼(현대 불교신문발행인) 김규철(언론인) 김기철(도예가) 김상락(단국대학교수) 김성배(미, 연방정부공무원) 김세용(도예가) 김응화(한양대학교수) 김호석(화가) 남준(동국대도서관) 민희식(한양대명예교수) 박범훈(작곡가) 박재동(에니메이션감독) 배광식(서울대학교수) 박훈(前 중앙대연구교수) 서해경(전주대학교수) 손진책(연출가) 尹用淑(여성문제연구회장) 안상수(홍익대학교수) 안숙선(판소리 명창) 안장현(사진작가) 이규경(화가) 이규택(경서원대표) 이근후(의사) 이인자(경기대학교수) 이철교(동국대출판부) 이호신(화가) 임현담(히말라야순례자) 정용표(서예가) 한승조(고려대명예교수) 홍사성(불교평론 편집위원) 홍신자(무용가) 황명숙(현양대명예교수) - 가나다순 -

집행위원장 : 松菴至元(도솔산 도피안사 주지)
부위원장 : 至宗(불광사 주지) 李淳國(신호그룹 회장)
위원 : 김석환(하나전기대표) 박성근(나눔인) 이종하(재,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사무국장)